제06호 / '14.5.30(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차 제시안, 언급할만한 가치도 없다



1차 제시안은 나왔는데..

지난주 5차 교섭이 사측 성원부족으로 결렬된 후 2주 만에 6차 교섭이 열렸다. 29일(목) 14시 대한이연에서 열린 6차 교섭에서 사측의 첫 제시안이 나왔다. 27일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1차 제시안이 나오고 지부교섭에서도 1차 제시안이 나온 것이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

1차 제시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있어야 하는데, 1차 제시안은 너무 부족했다.

2014년 대전충북지역 사용자 제시안

1.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
   추후 제시
2. **임금의 지급**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정한다.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회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할 때는 당해 사업장의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개편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4. **자녀돌봄 휴직**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 그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진단으로 격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해당 조합원외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그 처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로 정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각 사업장별로 정하자'는 것이다.

교섭위원들은 "이건 지부교섭을 무시하는 처사다. 제시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질문할 내용도 없다고 일축하고 진전된 제시안을 고민해올 것을 요구했다.

다시 성실히 숙제해오길

지난주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 주 건너뛴 만큼 진지하게 고민한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다음 교섭도 6월 5일 휴무로 인해 또 2주 후에 열리게 됐다. 이번엔 정말 성실하게 지부에서 내준 숙제를 해오길 바란다.

6차 교섭 속기록

회사별 논의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사회 : 전차 교섭은 사측 성원 부족으로 진행을 못했다. 6차 지부교섭 시작하겠다.

사 : 반갑다. 오늘 6차 교섭인데 급하게 저희 회사(대한이연)로 장소가 결정되어 대표이사가 선약으로 참석을 못했다. 양해 바란다. 지부교섭에 상당히 무거운 내용도 있는데 업체간 논의를 통해 성실한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노측도 사용자 안에 대해 이해와 협조 바란다.

노 : 사측 제시안 있나?

사 : 예. 저희가 6차까지 왔는데 안을 내야한다고 본다. 중앙교섭도 안을 냈고, 회사측에서 초안이지만 안을 마련했다.

<사측 1차 제시안 전달>

노 :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

<정회 후 속개>

노 : 제시안을 주셨는데, 교섭위원 의견이 '이건 제시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질문사항은 없다.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다음 번에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사 : 제시안 보시고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임금성 요구안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내려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지급이나 체계 관련한 내용은 각 사별 지회 요구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다. 그러다보니 지부에서도 하고 지회에서도 똑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의 고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교섭이 한두차례에 끝날 것은 아니니 진전된 안을 고민하겠다. 6개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 양해해달라.

사회 : 차기 교섭일정 확인하겠다.

노 : 6월 5일인데 예정대로 하자. 이번에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소방훈련 때문에 교섭장소로 못했다고 알고 있다.

사 : 세월호 사고 이후로 비상시 대응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었다. 이번에 그래서 장소 결정할 때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 번엔 한라비스테온공조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2개 사업장이 5일날 휴무다. 그리고 1개 사업장은 출장이다.

노 : 그렇다면 2주 동안 성실히 안을 고민해서 다다음 주에 교섭을 하자.

사 :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거 같은데, 열심히 고민을 해오도록 하겠다.

사회 : 차기 교섭은 6월 12일(목) 14시 한라비스테온 공조에서 진행하겠다.

'회사별 논의'는
지부교섭 기만이다!